

● 제 3회 성균 번역 Contest 심사평

2016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2018년도 성균 번역 콘테스트에 총 29명(재학생: 28명, 수료생: 1명으로, 수료생은 자격요건 결격)이 응모하였다.

대학원에서는 번역·TESOL 대학원 재학생 외에 심리학과 등 타과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학부에서는 영어영문학과 외에 교육학과, 심리학과, 사학과, 통계학과, 독어독문학과, 러시아어문학과, 경영학과, 유학·동양학과 등 인문 부문뿐 아니라 이과 부문에서도 참여, 다양한 전공자들이 번역에 높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본 심사는 3명의 심사위원이 참여, 3번 심사했는데, 지난 해와는 달리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나누어 심사 수준에 차등을 두었다. 심사위원들은 1차에서 12편을 추려냈고, 2차에서 6편을 선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상 작품과 우수상, 장려상 작품을 선정하였다. 대학원에서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번역물은 없었는데, 이는 뚜렷하게 우수한 작품이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학부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한 명을, 대학원 부문에서 우수상 두 명과 장려상 한 명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들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몇 가지 주요 평가기준을 세웠다.

(1) 원문에 대한 충실성(faithfulness), (2) 한국말이 잘 읽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가독성(readability), (3) 문학적 특성, 즉 저자의 문체(style)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첫째, 충실성의 경우 정확한 의미 전달뿐만 아니라 문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둘째, 번역물 또한 하나의 완성된 문학작품이라는 점을 감안, 자연스러운 우리말 구사 또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주어와 동사의 호응관계나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 띄어쓰기 등도 포함된다.

세 번째는 단순히 원문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저자가 의도한 문학성까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특히 본 작품은 9/11을 소재로 한 SF 작품이라는 특성상, 배경과 소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했으며,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동안 등장하는 각종 장면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했다. 아쉽게도 오역이 없는 응모작은 없었다. 이야기 전개상 꼭 필요한 부분에서 선명하지 않은 번역이 나오거나 오역이 많았던 부분은 문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심사하는 이의 입장에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총 14 페이지에 달하는 양을 번역해내는 동안 응모자들은 번역이라는 작업이 내포한 매력과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한나라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가치관이 녹아 들어 있는 문학 작품을 문화와 상황이 상이한 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번역이 단순한 말 바꾸기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저자가 펼쳐내는 세계를 맛보는 즐거움을 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응모자들이 그

동안 기울인 노력을 디딤돌 삼아 정진하기를 바라는 한편 이번에 보여준 잠재력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훌륭한 번역물이 나오기를 바라며 심사평을 마친다.

● 제 3회 성균 번역 Contest 번역작품 선정 취지

본 단편은 네블러(The Nebular), 월드 판타지(The World Fantasy), 그리고 휴고(The Hugo)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한 미국 작가 제프 밴더미어(Jeff Vandermeer)가 미국역사상 최악의 참사라고 할만한 9/11에서 모티브를 따와 쓴 공상과학 소설로, 두 대의 비행기가 맨해튼의 건물에 충돌할 당시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Bush)가 어린이들에게 염소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다는 실제 사건을 주축으로 하며, *Other Earths*를 비롯 두 권의 단편 소설집에 실려 있다

총 14페이지에 달하는 본 작품은 분량 면에서나 줄거리 면에서나 문체 면에서나 장래 번역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번역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본 작품에는 저자의 독특한 문체는 물론, 문화, 종교, 역사 등 여러 상황이 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사건 또한 다양한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 번역자들의 우리말 표현 능력과 문화적인 이해도, 문학 텍스트 해독능력을 평가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본 작품이 지난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번역 작업에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도전적인 사안임을 고려, 번역 대상텍스트로 선정하였다.